



[산업]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회적 가치 창출 기업의 지속성장 이끌 것” 04



Economy

코스피	2461.38 (0.00)	코스닥	856.34 (0.00)
금리 (우대금리)	2.28 (0.00)	환율 (원/달러)	1077.20 (0.00) (7일)

IFRS 도입, 그 후 7년

투명성 제자리, 논란만 확산 ‘실패한 개혁’

회계의 회계

1 미완의 회계개혁

‘원칙중심 기준’ 도마 올라 작성자 재량 기재 가능해 회계처리결과 왜곡 우려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도입된 국제회계기준(IFRS)의 ‘원칙중심 회계기준’이 도마위에 올랐다. 감사인의 자의적 해석이 개입될 수 있다는 점에서 ‘편의성’은 갖췄지만 ‘정확성’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회계기준원은 ‘한국의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 5년의 경험과 교훈’라는 보고서를 통해 “IFRS는 작성자의 재량이 기재될 수 있기 때문에 자의적 또는 기회주의적인 해석으로 회계처리 결과가 왜곡될 위험도 있다”고 지적하면서 “원칙중심 회계기준은 경영진과 감사인의 판단은 전문성과 합리적 증거에 기초하여

(IFRS 도입·적용 따른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의 자유응답)

긍정적인 면	응답빈도
연결실체에 대한 평가·통제 향상	40
회계담당자 역량 등 전문성 강화	30
신뢰성 증대	26
공정가치 평가에 따른 이점	22
회계투명성 향상	21
회계정보 유용성·활용성 증대	19
비교가능성 제고	11

부정적인 면	응답빈도
회계업무 부담의 가중·관련 비용의 증가	124
재무제표 작성 등 회계처리의 어려움 증대	59
이해가능성 저하	45
주식 관련 부담의 증가	19
비교가능성 저하	18
회계처리의 자의성 증가 위험	14
구 K-GAAP 대비 IFRS에 대한 불만	13

한국회계기준원

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현령비현령’ 식 회계 잣대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분식회계 논란이 불거진 지난달 30일부터 4거래일 연속 하락하면서 이 기간 9조6931억원의 시가총액이 증발했다. 불과 한 달 전만해도 장중 60만원을 찍었던 주가가 35만9500원으로 내려앉은 것. 회계 문제가 일반투자자들의 손해로 고스란히 전이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의 쟁점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배력 상실 여부다. 삼성바이오는 바이오제이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콜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배력이 줄었다고 판단,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처리하고 지분가치를 장부가치(취득원가)가 아닌 공정시장가로 다시 평가했다.

그리고 이런 해석이 가능했던 배경은 IFRS의 ‘원칙중심 회계기준’에 있다. IFRS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

는 회계처리 기준이다. 나라 간 투자가 왕성하게 이뤄지는 상황 속에서 나라별로 다른 회계기준은 투자장벽으로 작용해왔다. 이에 영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국제회계기준 위원회가 국제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회계 기준인 IFRS를 마련한 것이다.

이는 지난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는데 모든 국가의 회계처리 방식이 통일되면서 활발한 해외투자를 촉진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도 다른 나라에 진출할 때 회계를 수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해외진출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 현실 반영 못하는 IFRS, 기업의 자발적 노력도

하지만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로 IFRS의 한계가 드러났다. 기존 각 국가에서 사용되던 일반기업회계기준(GAAP)과 달리 IFRS는 원칙중심 회계라는 점이다. <2면에 계속>

/손엄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사회

메트로경제가 경력기자를 모집합니다

메트로신문이 창간 16주년을 맞아 통일한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할 언론계 주인공을 찾습니다. 2002년 5월 창간한 이후 성장을 거듭하며, 올 3월에는 국내 언론사 중 유일하게 유·무료신문 동시발간 체제에 돌입한 메트로신문이 유능한 경력기자를 모집합니다. 메트로신문은 서울시내 주요 지하철역에서 매일 아침 시민들에게 <메트로>를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메트로신문은 창간 16주년인 2018년을 맞아 관공서·기업 독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난 3월 5일 유료신문인 <메트로경제>를 직접 배달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메트로신문은 신문의 격을 한층 더 높이기 위해 유능한 경력기자를 모집합니다. 16년 역사의 메트로신문과 함께 언론의 새로운 길을 개척할 인재 모집에 많은 지원 바랍니다.

- 모집부문 : 산업 / 금융 / 유통 / 정치분야 취재기자
- 모집내역 ① 전형방법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
- ② 모집인원 : 0명
- ③ 응시자격 : 해당 분야 경력 3~10년 사이
- <공통사항> ① 남성은 병역필 또는 면제자
- ②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제출서류
- ① 지원서 1부 (지원서 양식 홈페이지 다운로드/지원서에 사진부착)
- ② 졸업증명서 1통, 석·박사 학위증명서(해당자) 1통
- ③ 기명기사 3건
-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②③항의 서류를 면접 시 제출
- 원서접수
- ① 기간 : 2018년 5월4(금) ~ 2018년 5월18일(금) 오후 6시까지
- ② 접수방법 : e메일 접수 recruit@metroseoul.co.kr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5월 18일 도착분)
- ③ 접수장소 : (03035)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 17길18(옥인동) (주)메트로미디어 4층 경영지원실 앞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본지 웹사이트 공고 및 개별 통보
- 기타 ① 제출된 서류는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 ② 문의 : 경영지원실 (02-721-9826)



어버이날 써보는 글자 ‘효’ 7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김동욱 서예가가 어버이날을 하루 앞두고 ‘효’ 서예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남북교류 물꼬 트는데... 저작권 보호도 통일 필요

발생시점·보호기간 등 달라 상호주의적 협정 준비해야

한국에서 북한 저작권이 보호받는 만큼, 북한에서도 한국 저작권 보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남북정상회담을 기점으로 민간 교류 활성화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상호주의적인 저작권 보호 협정을 준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남북은 저작물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저작권 인정 범위가 다르

다. 한국과 북한 모두 국민(공민)이 예술 활동을 할 자유를 헌법으로 보장한다.

하지만 북한의 예술 창작은 공산주의 원리에 따라 진행되므로, 실제 개인의 창작물은 많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저작권위원회가 2015년 발표한 ‘북한저작권법 및 남북 간 저작권 분야 교류·협력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북한 예술인은 조선문학예술총동맹 소속 단체의 구성원이다. 이들은 국가로부터 주택과 생활비, 원고료를 받는다.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한다’는 공산주의 원리에 충실한 모습이다.

저작물에 대한 재산적 권리는 ‘저작물이 발표된 때부터 그것을 창작한 자가 사망한 후 50년’까지 보호한다. 한국은 지적재산권이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고 규정한다. 북한이 저작권 발생 시점을 저작물의 발표로 보는 반면, 한국은 창작한 때로 정한 점도 다르다.

◆ 명확한 합의 없는 저작권... ‘해적판 문학’ 시절도

공통점은 남북한이 국제 저작권 협약을 맺었다는 사실이다. 한

국문화관광연구원이 2016년 발표한 ‘저작권분야 남북교류협력 현황 및 발전방안연구(협력발전연구)’에 따르면, 남북은 모두 ‘베른 협약’에 가입돼 있다. 한국은 1996년, 북한은 저작권법을 도입한 지 2년이 지난 2003년에 가입했다.

베른협약은 저작자를 모든 동맹국에서 내국인 저작자와 동등하게 보호한다는 내국인 대우의 원칙을 선언한다. 남북한 모두 외국인의 저작물을 가입한 협약에 따라 보호한다. <3면에 계속>

/이범중 기자 joker@

JY의 글로벌 광폭 행보

BYD 등 中 IT기업 CEO 만나 전장·부품 신사업 협력 논의

중국을 방문 중인 이재용 삼성 전자 부회장이 현지 글로벌 정보 기술(IT) 대표를 잇달아 면담했다. 지난 3월 유럽·북미·일본 출장에 이어 차세대 성장동력을 찾기 위한 글로벌 행보로 분석된다.

7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중국에 도착한 이후 세계 1위 전기차 기업 BYD의 왕완푸 회장을 비롯해 런정페이 화웨이 회장, 레이쥔 샤오미 회장, 셴웨이 BBK(비보의 모기업) 최고경영자(CEO) 등과 만났다.

이들 업체는 모두 삼성전자의 부품 사업부문 주요 고객사다.

이 부회장은 이번 출장에 김기 남 사장 등 반도체·디스플레이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사장단들이 중국 선전의 한 전자기기 매장을 둘러보고 있다. /웨이보 캡처

업부문 최고경영진과 동행해 이들과 전장 및 부품 등 신성장 산업에서의 협력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2면에 계속> /정은미 기자 21cindium@